

민주 지도부, 정국 현안 대응 '파열음'

박주선 "4대강 예산 처리 모순 행동" 이강래 공개 비판

박지원 "지도부 국회 지켜야" 정세균 장외행보 쓴소리

4대강 예산 문제 등에 대응하는 민주당 대표와 원내대표에 당내 불만이 쏟아지는 등 당 지도부 사이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9일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국토해양위원회의 4대강 예산 강행처리와 관련해, 예결특위를 일단 정상이동키로 한데 대해 "말로는 원천무효라면서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모순된 행동이 어디 있는냐"며 이강래 원내대표를 공개 비판했다.

그는 작성한 듯 "이는 한나라당의 위법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예산 심사를 중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이 그동안 당내 비판을 자제해왔기 때문에 이날 발언은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회의는 곧바로 비공개로 이어졌으며 이 원내대표는 얼굴을 붉히며 박 최고위원을 향해 "공개석상에서 그런 발언을 꼭 해야 했느냐"며 불쾌감을 표시한 뒤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당 최고지도부 비판에는 박지원 정책위의장도 동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미디어법, 세종시, 4대강, 노동법·철도노조 파업 사태, 예산 등 5대 문제에 대해 타협하지도 투쟁하지도 못하고 넘어가고 있다"며 "사실상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당의 무기력증을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정세균 대표의 장외행보

와 관련, "주중에는 장외투쟁을 중단하고 대표와 지도부가 원내투쟁을 독려해야 한다"며 "지도부가 국회를 지키지 않고 자꾸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말이 되느냐. 비상사태에 지도부의 역할은 원내에서 이뤄져야 하며 보다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비상사태로 한석이 아쉬운 때"라며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정 대표와 천정배·최순순·장세환 의원의 원내 복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4대강 예산 강행처리와 관련, "그런 일을 당했는데 원내대표단이 우왕좌왕해선 안 된다"며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질 때 지더라도 원칙적인 것에는 싸워야 한다. 예산안마저 당한다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정 대표는 "장의 행보는 원내투쟁에 힘을 보태려는 것이지만 원심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민주당 지도부의 균열은 오래전부터 잠복해 왔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서로 역할에 대해 불만이 많았지만 적분분열을 막기 위해 참아왔다는 것이다.

또 내년엔 있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대표 경선에 참여할 후보들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당내의 원내 대응 비판에 대해 호남 예산을 지키기 위한 공여책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주목을 끌었다.

원내대표단 관계자는 이날 "민주당이 실행행동 등을 통해 끝내 국토위 예산 통과를 반대했을 경우, 정부의 원안만이 통과되면서 국토위에서 끼워 넣은 전남지역의 SOC 예산 등이 통째로 삭감될 수 있었다"며 "국토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강행처리를 방조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만길 고려대 명예교수가 9일 서울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김대중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9주년 기념 특별강연회'에서 '국민의 정부의 업적과 역사적 성취'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DJ는 평화주의자, 세계가 인정"

노벨상 수상 9주년 기념 강연회

이회호 여사는 인사말에서 "남편은 무엇보다도 화해와 용서, 관용의 정신을 실천하며 살았다"며 "남편이 남긴 정신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했던 정신과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만길 고려대 명예교수는 특별 강연을 통해 "노벨평화상은 김 전 대통령이 투철한 민주주의자요, 철

저한 평화주의자였음을 인정한 결과였다"고 평가했고,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 전 대통령이 생전에 주장한대로 9·19공동선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아프리카 케냐 어린이들로 구성된 '지라니 어린이 합창단'의 추모 공연도 열렸으며, 행사 참가비로 받은 3천만원은 불우이웃, 1만 달러는 케냐 어린이들을 위한 성금으로 각각 전달됐다.

/연합뉴스

4대강 예산 강행처리 위법 논란 광주 U대회 지원법 통과 전망

■ 오늘부터 임시국회 ... 향후 전망은

10일부터 30일 동안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4대강 살리기 예산과 노동조합법 개정 문제 등 여야가 대립하는 현안들이 즐비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4대강 살리기 예산 심의는 이번 임시국회의 최대 현안이지만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다.

특히, 한나라당이 지난 8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4대강 사업 예산 3조5000억 원을 아당의 반대에도 표결 없이 강행처리, 위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히려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보고를 받아보니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대폭적

인 예산 삭감에 나서겠다고 버르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 예산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이제 국토해양위로부터 길을 잃었다"며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 대폭적인 예산 삭감 의지를 재천명했다.

노조법 개정 문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여야 간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등 이해관계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해야 한다"며 한나라당의 노사정 합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추 위원장은 13년을 끌어온 노동관계법 시행을 더 이상 유

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입자 임금 금지'라는 원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 상당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다자협의체 구성은 이미 6자 협의를 통해 도출한 노사정합의안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은 문방위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제경기지원특위 구성이 어려워지면서 임시국회 내 처리를 위해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특히, 한나라당도 광주 U 대회 지원법에 대해 협력하겠다는 입장인 이번 임시국회에서 분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예산안 밀어붙이기 방관 못해"

우윤근 민주 수석부대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운하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방침입니다."

내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한나라당과의 물밑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예산 심의 파행은 원치 않지만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기로 나온다면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한나라당이 국토위에서 4대강 예산을 불법적으로 강행처리함에 따라 민주당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결의에 찬 모습을 보였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예산과 관련, 우 수석부대표는 "영산강과 같이 수질이 악화된 강이 문제 해결과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본질적으로 운하사업을 근거



로 하는 4대강 사업은 수용할 수 없으며 예산 삭감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 등 지역 현안 법안 처리와 관련, 우 수석부대표는 "문방위에서 처리할 방침이며 한나라당의 협조도 구한 상태"라며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국고 예산 확보와 관련, 그는 "한나라당과의 물 밑 협상을 통해 지역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전남지역의 SOC 예산과 광주 지역의 신규 사업 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길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3개 부처 이전으로 세종시 타협점 찾아야"

정우택 충북지사

정우택 충북지사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2~3개 부처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정 지사는 9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세종시 수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 "(이전 대상) 부처를 2~3개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지사는 "9부2처2청이 다 안되면 몇 개 부처라도 이전하는 것에 대한 동향을 살피고, 특혜성이 아닌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기업유도하는 등의 안이 만들어지면 충청민심이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 한다"며 "최종 수정안이 얼마큼 진지하게 받아들여질지에 따라 민심 향배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재규경찰학원의 합격프로젝트.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합격률 95%. 김재규경찰학원. 070-7433-0594

전액국비지원. 2009.12.18 - 6개월. 3명까지 지원 가능. 1. 30% 장학금, 2. 1차 합격 보장. 3. 100% 취업 보장. 중영 IT 직업전문학교. 02-223-0050

안정된 소득을 원하시는 분께. 070-7433-0594

한라 친환경 전통은민지. 친환경 자동차. 070-7433-0594